

안전한 완주 만들기 '성큼'

군, 국민안전처 공모 선정... 시설개선·안전문화운동 추진

완주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 인프라 개선은 물론,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4월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인프라 시설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해 범죄 분야에서는 우범환경개선을 위한 CCTV 설치, 학교주변 빈집 철거업, 여성 안심귀가길 조성용 슬라피지빙 설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비상소화전 설치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자살분야에서도 농약 안전보관함을 제작·배부하고, 교통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전통화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유인해충 퇴치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운동으로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삶의 소중함 가치를 일깨워가는 한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등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화재감지기 550개, 분말소화기 100개를 지원해 지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완주군은 올해 도내에서 안전지수가 가장 높을 정도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해 안전한 국 건설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완주군민의 안전한 삶을 제공토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I 꼼작마!'

무주군, 다중집합장소서 홍보 캠페인 전개

무주군은 28일 군민과 관광객 다중집합장소(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등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군 공동 홍보물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가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욱)가 주관한 AI(조류인플루엔자)꼼작마, 예방홍보 캠페인은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하나로마트 직원봉사자 7명과 무주장로교회 만나봉사단

(회장 문옥순) 13명이 참여했다.

무주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정보 및 전파경로, 감염사례와 예방법, 시중유통 가금류의 안정성 및 조리법 등 수록된 홍보물을 배포했다.

군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 도래지 및 양계장 방문을 자제할 안내 홍보에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AI(조류인플루엔자)의 빠른 종식을 위한 예방홍보 캠페인에 공감을 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사과재배농가 지원 확대

사업비 50억원 확보 명품사과 생산 차차

장수군은 사과재배농가 기반시설 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7개 분야 1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증가,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명품사과를 생산,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다. 이에 사과생산기반을 위해 신규 과원조성 35ha, 제조제 안 쓰는 사과 원기반구축 100ha, 고품질 사과생산 500ha를 지원해 과수농가의 현장에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부란병 방제기술 실증시험, 사과 CA저장고 이용 저장 기술 실용화 등 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로 활용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사과시험장에서는 사과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사과 유량묘목 및 대목생산포를 운영 무병 묘목을 농가에 공급할 것이며, ICT(재

배환경조절) 기술투입 스마트사과원도 시범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 예방 기술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서리 피해와 일소피해에 대해 1,000ha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수군에서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제조제 안 쓰는 친환경 안전사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과 수관하부에 피복시설을 100ha 조성하고 연차별로 지원면적을 확대 제조제 안 쓰는 장수사과를 생산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무주고, 친자연 공간 조성 나선다

명상 숲 조성 '맞선'

무주군은 28일 군청에서 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무주고등학교와 '명상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고등학교 김성철 교장, 정운운 학교 운영위원장, 외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명상 숲 조성에 따른 자금지원 및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무주군이 명상 숲 조성에 관한 일정 규모의 재정과 기술자원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명상 숲 조성과 활용·보전을 위해 무주고등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황 군수는 "학생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명상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미



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이 녹색캠퍼스에서 마음의 건강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고등학교 내에 조성되는 명상 숲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등 자연성을 확보하고 소음방지, 정서함양 등 숲이 갖는 기능성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자연학습

용 나무와 야생화들이 식재될 예정이다.

김성철 교장은 "아이들에게 자연체험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게 돼 기쁘다"며 "명상 숲 조성 시 지역과 학교를 하나로 모으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제근)에서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

'군민도 출향인도 한마음'

무주군,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무주군은 지난 27일 무주군 출향인들로 구성된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해왔다.

이날 성금은 37명의 기사가들이 고향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그동안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 축제 홍보와 동참에 적극 나서는 등 고향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왔다.

이중선 회장은 "생계 때문에 오래전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마음을 항상 이곳 무주를 향해 있고 무주사람

들에 쏟아져"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8일에는 무진장 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제근)에서도 성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잘 살아야 축산업협동조합도 잘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이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리포트

진안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03곳 점검완료... 10건 적발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질, 대기)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청정 진안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진안군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10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1건의 고발과 9건의 과태료 부과(총 940만원)를 하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가비·애항비 제막식

진안군에향운동본부(본부장 원봉진)는 28일 안호영 국회의원,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김현철 도의원, 관내·외 애항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가비 및 애항비 제막식을 민남의 광장 현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막 커팅식과 풍선 날리기 행사, 개회사, 애항운동본부 실천강령 낭독, 진안군가비 제막, 경과보고, 자랑스런 애항인 13명에게 주는 애항패 전달식과 함께 진안사랑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가비는 1951년 제7대故 김재영 군수가 전란 속 훈육한 민심을 바로 잡고 군민 화합을 위해 작사하고 진안중학교故 고영석 선생이 작곡한 군가를 새겼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무인항공기 시연회

장수군청은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장비도입을 위해 5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항공기 연습장비(DJI계열 2대, 무선헤기 2대)를 구입, 교육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과 27일 2일에 걸쳐 산림복지과 직원대상으로 무인항공기 연습장비의 이론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교육의 목적은 고가의 무인항공기 도입 이전에 연습장비를 통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또 2018년 이후에 도입될 장비는 재난영상 송출 및 현장지휘용과 돌발병해충방제의 용도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2017년 동안 무인항공기 조종기술인력 양성에 힘쓸것으로, 2017년 불철 산불현장에 투입, 현장여건과 투입 장비간 호환성을 시범테스트 해 산불진화 현장지휘에 활용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용진 상운리~용흥리 1km 구간 무궁화 콘나무 심어

100리의 명품 무궁화길 조성 등 완주군이 전국 제일의 무궁화 명소도시로의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완주군은 용진읍 상운리~용진읍 용흥리 1km 구간에 무궁화 콘나무 240주를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용진읍~화산면 도로구간에 조성된 무궁화길은 총 36km로 연장됐으며, 식재된 무궁화 또한, 1만3424주에 이르게 됐다. 군은 이와 함께 이미 식재된 무궁화 1만3184주에 4000여포의 퇴비주기 작업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용진읍에서 화산면까지 명품 무궁화길 100리 를 목표로, 무궁화의 식재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구간은 2015년 산림청 명품무궁화길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산림청 지원으로 고산휴양림 내 무궁화동산 조성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나라꽃인 무궁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학산입과
063-430-2951